한글 창제 숨은 주역 '신미 스님'

영화 '나랏말싸미' 7월 24일 개봉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 그려
신미 스님 · 박해일, 세종 · 송강호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한글 창제의 숨은 주역은 신미 스님이다?" 7월 24일 개봉하는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 는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다.

유네스코가 최고의 언어로 평가한 한글. 세종대왕의 업적으로 적고 있는 그 위대한 역사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 역사에 세종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은 없었던 것일까. 영화는 세종과 함께 한글을 만들었지만 우리 역사가 적지 못한 이름과 그들의 이야기를 스크린에 적고 있다.

1443년, 훈민정음이 세상에 온다. 불굴의 신념으로 한글을 만들었으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문자와 지식을 권력으로 독점했던 시대. 모든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세종의 8년. 그 8년이라는 위대한 세월 속에는 세종의 이름 말고도 적어야 할 이름들이 많았다. 그 중 가장 먼저 적어야 할 이름은 '신미', 신미 스님이다. 신미 스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글은 없었을지 모른다. 있었다고 해도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다.

"난 공자를 내려놓고 갈 테니, 너는 부처를 내려놓고 와라" / "나는 부처를 타고 가겠습니다. 주상은 공자를 타고 오십시오!"

시절은 억불숭유의 조선. 승복은 시대를 거역하는 옷이었으며, 불서는 나라를 거역하는 글자였다. 시대가 버린 옷과 글자를 따르는 불제자 신미 스님은 불경을 기록한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 파스파 문자에 능했다. 억불의 정치를 가장 왕성하게 펼쳤던 임금, 세종이 시대의 정반대편에서 살아가는 신미대사를 만난다. 그리고 한글 창제의 역사는 실마리를 찾는다.

중국의 각종 언어학을 섭렵했음에도 세종은 한글 창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실마리는 시대의 글자가 아니었던 〈팔만대장경〉에 있었다. 세종은 신미대사를 통해 소리글자 산스크리트어를 접하고 '소리글자' 라는 답을 찾는다.


한글창제의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던 신미 대사. 그는 세종을 도와 한글을 창제했다.

세종은 신미대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신미대사는 나라의 글은 백성의 것이야 한다는 세종의 뜻에 공감하고 한양에 법당을 지어주는 조건을 달아 세종의 뜻을 받아들인다. 가장 높은 곳에 살았던 임금 세종과 가장 낮은 곳에 살았던 신미 스님, 두 사람이 뜻을 모아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쉽게 쓸 수 있는 나라의 글자를 만들기 시작한다.

영화는 한글이 그 형태를 갖추어 가는 과정을 언어학자와 종교학자 등 전문가들의 자문과 고증을 거쳐 역사적 사실성의 드라마를 완성한다. 시대의 질서와 약속과는 상관없이 신미대사를 수양과 안평의 스승으로 삼는 세종의 모습에서 '한글 창제' 자체가 시대를 상대로 한 커다란 모험이자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향해 한마음으로 달려가는 한 시대의 개척자들. 신미 스님을 비롯한 그들의 이름은 세종이라는 이름 뒤에 있었을 뿐 역사에 기록되지 못했던 이름들이다. 영화는 먼 훗날을 위해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낸 그들의 이야기다.

한글 창제의 숨은 주역 신미대사 역은 배우 박해일이 맡았다. 박해일이 연기한 신미 스님은 유교의 나라 조선이 금지한 불교에 귀의한 인물로 자신이 귀의한 불법(佛法) 외엔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는 단단한 불제자다. 배우 박해일은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등 많은 사찰을 찾고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며 '신미' 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한글 창제의 과정을 다룬 영화 '나랏말싸미' 에는 기존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쉽게 갈 수 없는 역사적인 공간들이 등장한다. 시나리오 작업 과정에서 세종과 함께 뜻을 모아 한글을 만든 신미 스님의 행적을 따라갔다. 영화는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부터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안동 봉정사, 곡성 태안사, 순천 송광사 국사전 등 유서 깊은 도량이 등장한다.

"이 땅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는 팔만대장경과 훈민정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영화인으로서 오랫동안 품고 살아왔습니다. 몇 년 전, 그 두 가지 이야기 사이에 '신미' 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화 '나랏말싸미' 는 새 문자가 탄생되는 위대한 역사를 씨줄로, 그에 얽힌 많은 인연을 날줄로 엮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조철현 감독은 30년 동안 제작과 기획, 각본 등 '영화 만들기' 의 여러 영역을 거쳤다. 그는 이번 영화 '나랏말싸미' 로 마침내 감독으로 데뷔했다. 영화 '나랏말싸미' 는 그가 20년 동안 품고 살았던 화두였다. '신미' 라는 이름을 만남으로써 그 숙원은 영화 '나랏말싸미' 로 회향했다. 그는 '한글의 탄생' 을 둘러싼 통념을 깨고 불제자 신미를 되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면서 쉽고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이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을 강한 개성과 매력을 가진 인물들을 통해 역동적인 드라마로 그려냈다.

백제왕도서 백제문화 모든 것 만난다

7월 8~14일 공주 · 부여 · 익산서 '백제문화유산주간' 개최

백제 왕도였던 공주 · 부여 · 익산에서 백제문화를 만날 수 있는 문화행사가 열린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공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정림사지박물관, (재)백제세계유산센터 등 9개 기관과 협력해 오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공주, 부여, 익산 등 백제왕도에서 '백제문화유산주간' 을 개최한다"고 6월 25일 밝혔다.


지난해 열린 '백제문화유산주간' 중 정림사지에서 열린 프로그램의 모습.

'백제문화유산주간' 은 백제역사유적지구(8개소)가 2015년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백제 문화유산이 갖는 역사적 · 문화적 중요성을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해 지난 2018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7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개최하는 행사다.

주요 프로그램은 △명사 특강 · 강좌 △체험학습 · 활동 △답사 프로그램 △사진 · 그림 전시회 △유물 · 유적 연계 프로그램(백제문화유산 녹턴) 등이 진행된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백제문화유산 녹턴' 은 백제왕도의 중요유적과 출토유물을 연계한 참여기관의 공동 협력사업으로 이번 행사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이다. 한여름 밤에 열리는 전통 · 퓨전 음악회와 체험이 결합된 행사로 전통공연을 즐기며 박물관 소장품이자 유적지에서 나온 유물을 유적지와 연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7월 9일부터 13일까지 공주, 부여, 익산에서 총 4회에 걸쳐 즐길 수 있다. 각 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도 백제왕도를 주제로 한 강연과 포럼,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만들기 체험, 백제왕도를 보여주는 다양한 사진과 그림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행사 기간 내내 즐길 수 있다.

문화재청은 "백제문화유산주간은 백제왕도를 역사교육현장이자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하는 행사로, 지난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과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면서 "올해도 백제왕도를 대표하는 고품격 문화재활용 · 홍보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국립경주박물관 작은 음악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신라미술관

국립경주박물관(관장 민병찬)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신라미술관 로비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할 수 있는 박물관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박물관 작은 음악회는 9월까지 정기적으로 열린다.

6월 29일 열린 첫 공연에서는 '앙상블의 조화' 라는 주제로 소프라노 솔로 가곡 '꽃구름 속에' 를 시작으로 포항시민합창단의 중창, 클라리넷 앙상블 연주 등으로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다양하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선보였다.

문화행사는 별도의 입장권이나 사전 예약은 없으며, 박물관을 방문하시는 관람객은 누구나 음악회에 참석할 수 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에는 전시품 해설 프로그램인 '문화재 돋보기' 와 '영화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국립경주박물관 작은음악회.

이번 문화행사에 대한 자세한 행사 내용은 054-740-7519로 문의하거나 또는 국립경주박물관 누리집(http://gyeongju.mus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